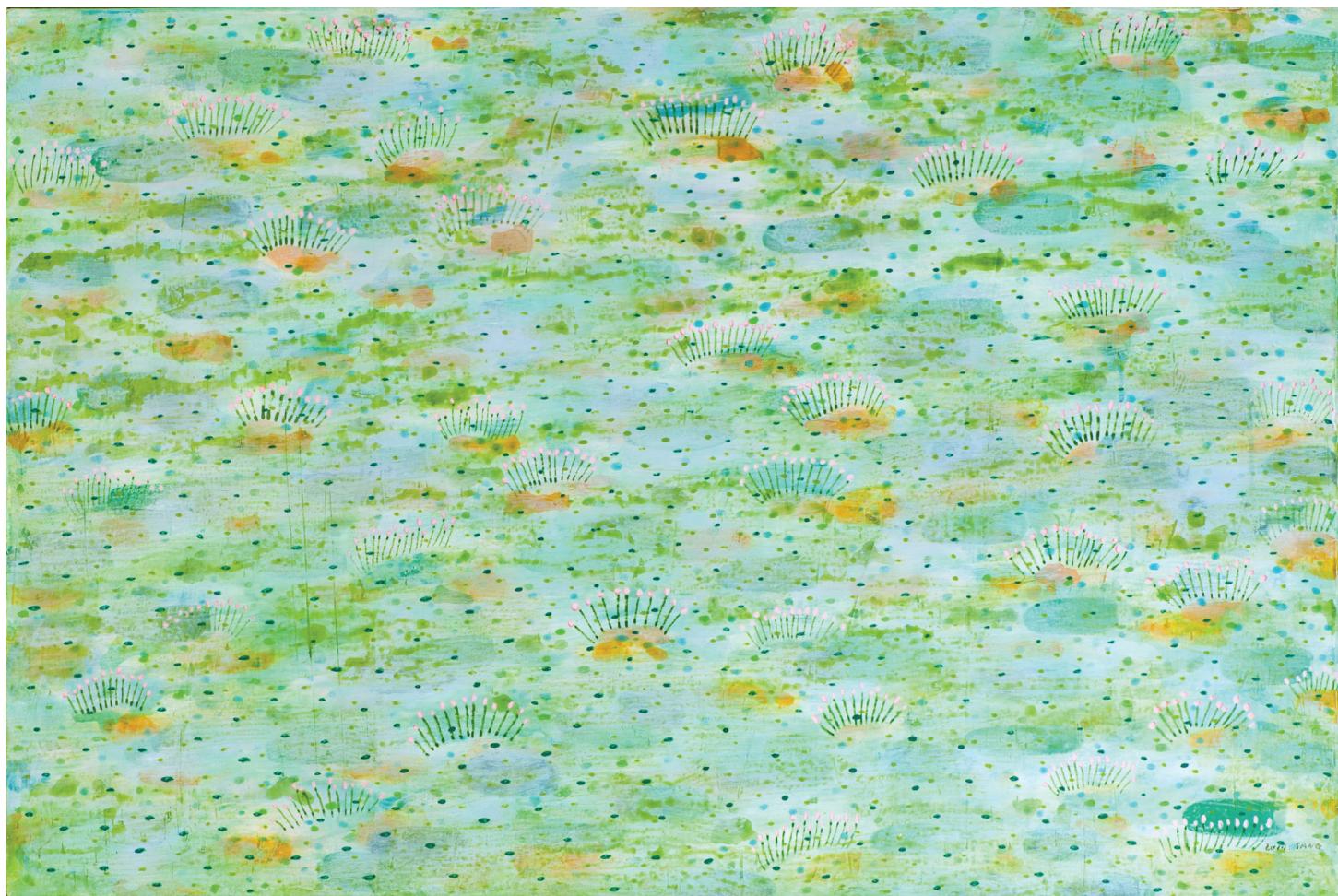


불기 2561년

 통권 14호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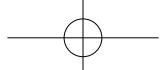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 대한불교조계종

재단
법인

서원수좌서문화복지회

www.seonsujoa.org



●●● 禪, 봇을 만나다



소신공양 / 130x33

추담 스님

1898년 함경도 함흥 출생.

1924년 귀주사로 출가 후 아동 교육과 독립운동에 힘쓰다.

조계종 총무원 초대 교무부장, 금산사, 법주사 주지, 종회 부의장 등 역임

1978년 소요산 자재암에서 세수 81세, 법랍 42세로 원적에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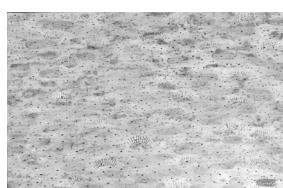


글 순서

禪

불기 25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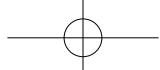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통권 14호



2	禪, 볶을 만나다 소신공양 / 추담스님
4	지혜의 곳간⑧ 대혜 보각 선사 『종문무고 (38화~43화)』 / 연관 스님
8	일상 속 수행 다듬잇돌 / 법념 스님
11	禪사상과 수행① 선(禪)의 기원 / 월암 스님
14	우리 말 선사어록 우리 선(禪), 우리 말투 / 오윤희
17	쉬고 또 쉬고 연꽃 / 희상 스님
18	수행자의 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심왕명心王銘』 / 여현 스님
20	사찰숲 이야기 봉암사에서 온 세상으로… 부처님 법 / 박희준
24	역사 속 재가수행자④ 당나라 시대, 세 선지식을 섬긴 배후 / 정운 스님
26	수행의 현장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 2 / 박희승, 홍광표
28	불자 참선 수행기 윤희의 삶에서 벗어나리!(상) / 본정하 보살
30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추진 경과보고
32	대중알림판
34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 참가 신청서
35	정기후원신청서
36	후원현황
39	바랑에 담긴 詩 茶談(다담) / 정송 스님

표지화 – 희상스님

• 발행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발행인 대표이사 의정스님 • 발행일 2017년 6월 1일(14호) • 전화 02)922-9967
• 전송 (02)923-9967 • <http://www.seonsujoa.org> • E-mail seonsujoa@daum.net • 편집·제작 : 능인



대혜 보각 선사 『종문무고』(38화~43화)

참학 비구 도겸 엮음

연관 스님 번역

【제38화】 대승상(大丞相) 여공 몽정(呂公 蒙正)은 낙양 사람으로, 미천 할 때 생계가 매우 곤궁하였는데, 큰 눈이 달포나 내려 밥을 빌던 부귀한 자의 집들이 모두 눈에 막혀 그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젊었을 때 급박한 사정을 시로 남긴 것이다.

열 군데 부잣집 문을 두드리면 아홉 집은 열어주지 않아
온 몸에 눈보라를 맞고 돌아오고 만다.
문에 들어서 애처로이 처자식 얼굴을 바라보니
싸늘한 화로, 밤새워 재를 뒤적인다.
十謁朱門九不開 滿身風雪又歸來
入門懶觀妻兒面 撻盡寒爐一夜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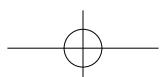
그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다.
도중에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의 곤궁을 측은히
여긴 나머지 절로 맞이하여 음식과 의복을 주고
돈궤미도 주어 보냈다. 달포여 만에 또 다 떨어져
다시 그 스님을 찾았다. 스님이 “이렇게 해서는
끌이 없습니다. 차라리 가족들을 데리고 절 바깥
채에 기거하면서 밥 먹을 때는 대중과 같이 죽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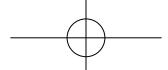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간에 나누어 먹으면 거의 장구책이 될 것입니다.”
하니, 여공이 그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이제 의식에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마침내 힘써 책을 읽어 그 해 향거(鄉舉)에 향천(鄉薦)을 획득하니, 그 스님이 말과 종을 사고 의장을 준비해 주며 서울로 가서 대과에 응시하게 하였다. 궁중에서 시험을 치러 전시관이 이름을 부르니 수석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 서경(西京) 통판(通判)에 부임하여, 그 스님과 만나 평시와 같이 교유하였다. 10여년 동안 집정하여 무릇 교사(郊祀: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할 때마다 받는 봉급은 모두 다락에 쌓아두었다. 태종이 하루는 “경은 누차 교사를 지냈으면서 봉급을 쓰는 것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오?” 하고 물으니, “신은 사은이 있사온데 아직 갚지 못했나이다.” 하였다. 주상이 따져 묻자, 마침내 사실대로 아뢰었다. 주상이 “스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 하고 찬탄하며, 자세한 이름을 아뢰게 하여 붉은 가사를 내리고 스님의 호를 더하여 그의 남다른 심행(心行)을 표창하였다.

여공은 그가 모은 봉급 수만 궤미를 해아려 보고,





서경에 증서를 만들어 놓고 그 스님이 이 돈을 청구하여 절 건물을 수리하거나 스님들에게 공양하게 하였다. 그 절이 원래는 철마영(鐵馬營:지명)에 있었는데, 태조와 태종 두 임금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태조조(太祖朝)에 이미 절이 있었으나 그 이름은 잊어버렸고, 그 스님은 그 절 사주(寺主)였던 것이다.

태종이 따로 돈을 내려 삼문(三門)을 중건하게 하고, 어서(御書)로 편액을 내려 스님들에게 도첩을 주게 하기도 하였다.

여공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축원하기를 “삼보를 믿지 않는 자는 저희 집에 태어나지 말게 하시고, 자손이 대대로 조정에서 녹을 먹으면서 불법을 외호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조카인 이간(夷簡) 신국공(申國公)은 매달 초하루마다 집안에 모신 불단에 절하고 나서, 향을 피우고 광혜 연(廣慧璉) 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존경하는 마음을 더했으며, 신공의 아들 공저(公著)도 역시 신국공에 봉해져 초하루마다 천의 회(天衣懷) 화상에게 편지를 올렸으며, 우승(右丞) 호문(好問)은 초하루마다 원조(圓照) 선사에게 문안 편지를 올렸으며, 우승의 아들 용중(用中)은 초하루마다 불조 고(佛照杲) 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으니,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유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를 깨우치는 바이다.

【제39화】 보령 용(保寧 勇:보령사 仁勇 선사. 楊岐方會 제자) 선사의 두 상족, 처청(處清:太平處清

선사)과 처옹(處凝:天柱處凝 선사)은 함께 백운 단(白雲端) 선사에게 참예하였다. 그 중 처옹은 오랫동안 시자료(侍子寮)에 있었는데, 단 선사가 가슴앓이를 앓고 있어서 응은 늘 노복(蘆菔:무의 일종)을 잣불에 구워 놓고 때도 없이 찾는 것에 대비하였다.

단이 부대사(傅大士)의 강경인연(講經因緣: 『벽암록』 37칙에 “양무제가 부대사를 청하여 『금강경』을 강의하게 하였는데, 대사가 자리에 올라가 경상을 턱! 한 번 치고 내려오니 무제가 깜짝 놀랐다.” 하였다.)에 대한 송을 지었는데,

대사가 어찌 경을 강의할 줄 알았으랴.

지공이 방편으로 그렇게 시켰네.

한 번 책상을 침이여, 아무 것도 취할 것이 없는데
양왕(梁王)만 눈이 휘둥그레졌네.

大士何曾解講經 誌公方便且相成
一揮案上俱無取 直得梁王努眼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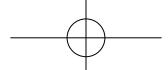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한 것을 들어, 응에게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이 구절은 응을 위해 노파선(老婆禪)을 말한 것인데, 응이 직접 들은 것으로 여기고 송 아래에 글을 덧붙여 달았다. 나중에 서주(舒州) 천주산(天柱山)에 살았다.

처청은 용서(龍舒) 태평사에 살았는데, 큰 기변이 있어서 오조 연 화상도 그를 외경할 정도였다.

처청이 처옹에게 “우리 아우의 선은 노화상에게 노복을 구워드리고 바꾼 것이다.” 하였다.

【제40화】 정화(政和:송나라 휘종 연호) 때 응수재(熊秀才)라는 이가 있었는데, 파양(鄱陽) 사람이었다.



● ● ● 지혜의 곳간 8

그가 흥주 서산을 여행하다 취암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장로 사문(思文:雲居思文 선사) 화상은 불인 원(佛印 元) 선사의 제자로, 역시 파양 사람이다. 그래서 화상을 모시기 위해 두 사람이 마주 들 수 있게 만든 작은 가마를 보내 정상(淨相)에 이르렀다. 지나가는 울창하고 깊숙한 산림 속에서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다. 용모가 고요하고 정신이 청아해 보였으며, 얼굴을 덮은 눈썹에 머리는 눈을 덮어쓴 듯 희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반석 위에 앉아있는데 흡사 벽에 그려진 불도징(佛圖澄:晉나라 때 스님. 천축 사람)의 모습이었다.

웅이 “요즘은 이런 스님이 안 계시는데 … 소문에 양좌주(亮座主)가 서산에 은거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아직 살아계시는 모양이로군!”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가마에서 내려 공손히 앞으로 다가가 “혹시 양좌주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으니 노승이 손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웅이 두 가마꾼과 노승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다 머리를 돌려 보니 그 스님이 간 데가 없었다. 그 때는 가랑비가 내리다 막 개였을 때였는데, 웅이 바위 위에 올라가 살펴보니 앉은 자리가 보송보송 말라있었다. 그리하여 사방을 서성대며 큰 한숨을 쉬며 “숙세의 인연이 두텁지 못하면 비록 만나더라도 만나지 못한 것과 같구나!” 하였다.

【제41화】 개선선섬(開先善湜) 화상이 귀종혜남(歸宗慧南) 선사를 위하여 선상명(禪牀銘)을 지었으니,

밝은 구슬은 조개에서 생기고
옥토끼가 새끼를 배듯이
이 선상을 보니
도를 깨닫게 하는 중매장이네.

明珠產蚌 涼鬼懷胎

觀此禪牀 證道之媒

하고, 혜남(慧南)이 다음에 귀종사(歸宗寺)를 위해 명을 지어

놓아버려야 편안하다.

放下便穩

하니, 개선이 깊이 긍정하였다.

【제42화】 선주(宣州) 흥교원(興教院) 탄(坦) 선사는 온주(溫州)가 고향인데 성이 우(牛) 씨였다. 대대로 은 세공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은 병을 만들다 문득 깨닫고는 마침내 출가하여 중이 되고, 구족계를 받은 후 사방에 행각하여 낭야광조(瑣那廣照:慧覺)의 제자가 되었다.

회(懷: 天衣義懷) 선사가 흥교에 있을 때 탄이 제일좌였는데, 회가 다른 곳에 청을 받아 가면서 탄을 천거하여 주지를 잊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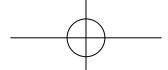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그때 조경순(刁景純)이 완릉(宛陵) 태수였는데, 조가 외부의 여론에 따를까 염려하여 회가 관음보살 앞에서 ‘만일 탄 수좌가 도안이 밟아 주지를 맡을 만하면 꿈에 조 학사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축원하였다.

조의 꿈에 소가 흥교원 법좌 위에 앉아 있었다. 회가 이를 새벽에 태수를 뵙고 이별을 고하니, 조가 간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가 크게 웃으니, 조가 까닭을 물었다.

“탄 수좌 성이 우 씨니, 또한 소가 아닙니까?”

그러자 조가 그 자리에서 공문서를 보내 그를 청하였다.



탄이 청을 받고 법좌에 오르니, 설두중현의 화주(化主)인 성종(省宗)이 나와 물었다.

“제불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사람마다 콧구멍이 하늘을 향하도록 치켜들고 오만하더니, 세상에 나오신 후에는 어찌하여 잠잠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계족봉 앞에 바람이 잠잠히.”

“아니다. 다시 말하라!”

“큰 눈이 장안에 가득하다.”

그러자 성종이 “누가 이 뜻을 알겠는가? 나로 하여금 남진(南泉)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하고, 소매를 떨치고 대중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하지 않으니, 탄이 “홍교원 새 주지가 오늘 손해를 보았군!” 하고, 방장으로 돌아가 사람을 보내 종을 불러오게 하여 따졌다.

“아까 일전어(一轉語)를 잘못 대답했다 하여, 인천의 대중 앞에서 어찌 예배하고 덮어줄 수 없었는가?”

“대장부가 당장 황금을 얻는다 하여 어찌 안목 없는 장로에게 예배하겠는가?”

그러자 탄이 “내가 달리 할 말이 있다.” 하였다. 종이 앞의 말을 따져 ‘아니다. 다시 일러라!’ 한 대목에 이르러, 탄이 “내게 삼십 방망이가 있으니 네게 주어 설두를 때리게 해야겠다.” 하니, 종이 그제야 예배하였다.

【제43화】 원오(圓悟) 화상이 처음 위산에 있을 때, 하루는 진여(眞如) 화상이 물었다.

“어떤가?”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쉬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범부인 줄 알겠다. 노승도 30년 동안 그 속에 있었으나 겨우 비슷한 것을 얻었을 뿐이다.”

다음에 회당(晦堂)을 뵈니, 당이 “내가 여기 머문 지 12년 동안 알지 못하겠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발끝으로 부처를 걷어찰 줄 알게 되었다.” 하였다.

오가 나중에 소각사(昭覺寺)에 머물 때, 어떤 장로가 물었다.

“유철마(劉鐵磨)가 위산에 이르러 문답한 것과, 설두의 어가행송(御街行頌)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이 40년 동안 다시 참구하더라도 또한 설두 화상의 처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가 탄식하며 “소각 화상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는데,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라.” 하였다.

* 벽암록 24칙에 나오는 이야기. 비구니 유철마가 위산에 이르니, 위산이 “늙은 암소야, 네가 왔느냐?” 하였다. 마가 “내일 대산(台山)의 대회재(大會齋)에 화상께서 가시겠습니까?” 하니, 위산이 벌령 드러누워 벼렸다. 그러자 마가 곧 밖으로 나갔다.

* 본칙에 대한 설두화상 송(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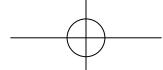
일찍이 철마를 타고 중성(重城)에 들어갔었는데
조직이 내려 육국(六國)이 평정되었다고 전하네.
그래도 금편(金鞭)을 잡고 귀객(歸客)에게 물으니
한밤중에 누구와 함께 어가(御街, 대궐로 통하는
길)를 걸어갈까 하네.

曾騎鐵馬入重城

勅下傳聞六國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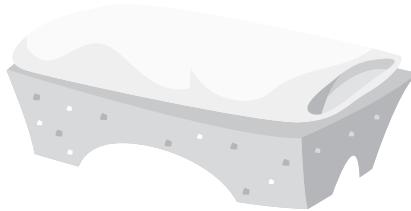
猶握金鞭問歸客

夜深誰共御街行



다듬잇돌

법념 스님(경주 흥륜사 한주)



매일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꼴이 마뜩치 않다. 겨울
이사서 차가운 날씨 때문에 더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마땅히 옮길 곳도 없으니 그냥 둘 수밖에.
추위에 떨고 있어야 하는 전들 얼마나 처연하랴싶
지만 별 도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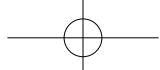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나일론이나 합섬섬유가 나오기까지 그것은 제법
유용하게 쓰였다. 지금은 본래의 역할을 잊어버렸
다. 특히 절집에서는 무명이나 광목 같은 베옷을
즐겨 입었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건만. 지금은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전에 안방아낙들
에게 대우반던 시절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군다나 자기 의지대로 오가지 못하고 살아야하
니 말 못하는 서러움이 오죽하랴싶다.

“스님, 저거 어때요. 디딤돌로 놓으니 안성맞춤
이죠.”

까만색이 도는 다듬잇돌이다. 댓돌 위에서 마루로
오르려면 높이가 있어 늘 불편해 골동품가게에 가서

사왔다는 지인의 설명이었다. 내가 만든 꽃밭 앞에
도 똑같은 놈이 하나 있다. 깨진 질그릇에 꽃을 심
어 그 위에 올려놓은 뒤로 위치하나 바꾸지 않고
십년 째 그대로다. 위상을 높여주고 싶지만 딱히
역할을 줄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지인
은 땅에서 위로 올려놓았으니 본래의 자리는 찾지
못했지만 조금은 신분상승을 한 셈이다.

예전에는 다듬잇돌이 대청마루나 안방에 앉아 귀
한 대접을 받았다. 먼지나 때가 묻을까봐 덮개까지
씌워 보호를 했다. 계절에 따라 여름엔 대청마루,
겨울엔 안방으로 옮겨 다니며 귀여움을 받았다. 동
짓달엔 해가 짧아 밤이 이슥하도록 다듬이와 마주
하여 소리를 냈다. 또드락 똑딱거리며 밤공기를 타
고 올려오는 소리는 자장가 같았다. 장단을 맞추며
두드릴 양이면 드럼 치는 소리보다 더 신나게 들리
기도 했다. 옛 여인네들은 한 맷힌 시집살이를 다
듬이질로 막힌 속을 시원하게 풀어버리지 않았나
싶다. 아니면 팔뚝에 힘을 주어 걱정근심이나 시름



을 떨쳐버리는 수단으로 다듬이방망이질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듬이방망이 소리는 처음에 똑똑똑 전주곡을 울린다. 그러다가 똑딱 똑딱 또드락 똑똑하며 소리를 잡아간다. 엿장수가 제멋대로 가위질을 하지만 묘하게 장단이 들어맞는 이치와 같다. 아무리 능숙한 록밴드의 드럼주자도 다듬이방망이의 빠름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한참 흥이 올라 또드락 똑똑 오르내리며 다듬잇돌을 두드리는 속도를 누가 감히 흥내 낼 수 있단 말인가.

오케스트라단원들이 악장마다 잠깐 쉬며 음을 고르듯 다듬이방망이도 어느 정도 두드리고 나면 쉬는 시간을 가진다. 옷이 반듯하게 손질이 되도록 다시 개켜놓아야 해서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듭한다. 옷감에 따라 3악장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5악장까지 가는 일도 있다. 마지막에 방망이를 놓을 땐 또-옥 또-옥 똑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다.

다듬이소리는 나무와 돌, 그리고 사람과의 조화에서 나오는 자연의 합창이어서 끝나도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긴다. 장엄하게 마지막 광파르를 울려 가슴을 짱 때리는 서양의 교향곡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듬이소리는 다듬이방망이, 다듬잇돌, 두드리는 사람이 어울려 기막힌 음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때로 둘이서 두드릴 때는 서로 장단을 맞춰 기막힌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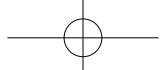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중 1년 겨울방학 때 큰집이 있는 대구로 놀러갔다. 방안에 들어서니 시집갔던 작은 언니가 와있었다. 마침 언니는 다듬이질을 하다가 면 산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왜 그러는가싶어 의아해 하니 할머니가 귀속말로 본마누라가 있는 걸 알게 돼 친정

으로 왔다는 거였다. 육십 여 년 전이라 중매로 결혼하다보니 그런 일이 더러 생겼다. 여고를 갓 졸업한 스물한 살에 뭣도 모르고 시집갔다가 일 년도 채 안 돼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으리라. 하릴 없이 명하니 앉아만 있는 게 보기 딱 했던지 할머니가 일거리를 주었다. 양단 치마저고리 뜯은 것을 손질해 착착 포개어 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통탕거리며 세게 두드린 것이다.

“무신 생각하니라고 그래 세계 뚜드리 패노. 그라다가 천에 구멍 날라. 살살하거래이.”

할머니가 잔소리를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언니는 들리는지 마는지 다듬이방망이를 쥐고 계속 둔탁한 음을 내고 있었다. 다듬이방망이가 내는 불협화음은 언니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속에 쌓인 앙금을 털어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죄 없는 다듬잇돌에 화풀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려서일까. 통탕 통탕 통탕 하염없이 두드린다. 고르지 못한 소리가 귀전을 울려도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예전 어른들은 다듬이방망이 소리만 듣고도 다듬이질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가늠했다. 다듬이질하는 옷감은 겨울엔 두꺼운 무명부터 광목, 양단, 모본단, 호박단 등이고 여름엔 얇은 갑사로부터 생명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다듬이방망이 소리는 명주나 갑사는 안단테나 아다지오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양단이나 모본단 등은 알레그레토로 조금 빠르게, 무명이나 광목, 이불호청 등은 알레그로 비바체로 빠르고 경쾌하게 가다가 프레스토 아시타토로 매우 빠르게 두드려야 올이 잘 서고 천에서 빛이 난다. 이런 리듬을 타고 손질한 옷은 진솔 때보다 옷매무새가 고와 입으면 태가



●●● 일상 속 수행

났다. 다듬이질이 잘 된 명주나 갑사는 구름무늬가 어른거려 신비감마저 자아냈다.

다듬이방망이는 둥글게 깎여져 있고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되어있다. 그래야만 고르게 힘이 가기 때문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물건이다. 그뿐인가. 다듬잇돌도 앞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도드라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다듬이방망이와 다듬잇돌의 미학이랄까. 정말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다듬이질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듬이질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잘못하면 옷에 구멍이 나거나 천이 미어져서 두 번 다시 옷으로의 가치를 상실할 때도 있었다.

지금은 다듬이질을 할 일이 없어졌다. 절집만 해도 이십 여 년 전까지는 다듬잇돌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젠 아예 손질해야 할 옷은 입지 않는다. 쉽게 입을 수 있는 값싼 옷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편리함에 한번 물들면 벗어나기 힘들어 손이 가는 옷을 입지 않게 된다. 자기 자리를 빼앗긴 다듬잇돌은 골동품가게, 대청마루 밑, 맷돌 위의 디딤돌, 화분 받침대 등으로 쓰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 본래 뭘 하던 물건인가조차 기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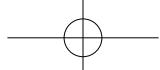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아야 철이 든다고 말한다. 앉고 설 자리를 잊은 다듬잇돌은 아예 틀려버렸기에 스스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 하니 안쓰럽기만 하다. 그러나 다듬잇돌은 올지 않는다. 지구가 돌고 돌 듯 유행도 돌고 돌아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날이 오리라는 걸 믿는 듯, 앉은 자리에서 말없이 오직 기다릴 뿐이다. 선방에서 절구통처럼 꿈쩍 않고 정진삼매에 들어 깨침을 기다리는 선승의 자세를 닮았다.

다듬잇돌 위의 질그릇이 기우뚱 기울어져 있다. 가운데가 약간 부른 탓이다. 납작하고 작은 돌멩이를 몇 개 주워와 밑을 고아주었다. 아까 보다 질그릇의 자세가 반듯하다. 그래, 그럼 된 거야.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선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던 다듬잇돌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는 괜찮으니 내버려 두라고 말이다. 어느 자리에 있건 불만이 없으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며 한 번 더 침을 놓는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고 ‘쉿’ 하며 조용히 앉는다.

그렇지, 앉은 자리가 제자리니까. 그걸 왜 여태 몰랐을까. ☺





선(禪)의 기원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백담사 기본선원에서 2017년 3월 16일~22일까지 진행된 월암 스님의 특강 내용입니다. 사미, 사미니 스님을 위한 강의였습니다만 바르게 알고, 올곧게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재합니다.

선(禪)은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yoga)에서 비롯되어 봉다의 명상과 정각(正覺)을 통하여 새로운 불교의 실천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가의 기원은 BC 3,000년 경 고대 인도의 원주민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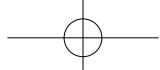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따라서 요가 명상에서 비롯된 선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가(yoga)라는 말은 사유(思惟) 혹은 명상(冥想)이라는 의미인데 “명상을 통하여 오감(五感)을 제어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 즉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시켜 적정(寂靜)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요가는 삼매(三昧, samadhi), 선나(禪那, dhyana)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선나(禪那)로 사용되어 오다가 선(禪)이라는 말로 일반화되었으며, 대승불교에서는 선바라밀(禪波羅蜜)이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설하는 브라흐만교에서는 요가의 명상을 통

하여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선정(禪定)은 제법의 본질인 연기(緣起)의 법을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여러 수행자를 찾아 수행하는 가운데 수정주의(修定主義) 사상가를 찾아가 선정법을 닦았다. 이들은 요가의 선정을 통하여 정신집중을 이루어 일체의 정신적인 작용이 정지되어 적정(寂靜)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고(苦)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은 이 선정법을 차례로 닦아 최고의 경지인 무소유처(無所有處)의 선정과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선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일체의 고통(一切苦)에서 해탈된 경지를 얻을 수 있으나, 선정에서 벗어나면 또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상태로 돌아오게 됨을 알고, 이러한 수정주의의 수행으로는 결코



● ● ● 禪사상과 수행 ①

완전하고 안온무고(安穩無苦)한 해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 수정주의를 버렸다.

그리고 다시 고행주의 수행자를 찾아가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혹독한 고행을 닦았다. 고행주의자들은 인간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며 육체의 기능을 약화시켜 최극한의 경지에 이르면 정신적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온갖 어려운, 최고의 고행을 모두 경험하였으나 육체적인 고행으로는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고행주의마저 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네란자라 강물에서 목욕하고 수자타(Sujata)에게 우유죽을 공양 받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금강보좌를 만들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새벽하늘의 샛별(金星)을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緣起法)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선정의 실천구조를 지(止, samatha)와 관(觀, vipasana)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통 ‘지관(止觀)’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止)는 사마타(samatha) 즉 삼매(三昧)로써 마음을 집중하여 산란심이 없는 경지를 말하고, 관(觀)은 비파사나(vipasana)로써 만법의 근원인 진리(緣起)를 관찰하여 깨닫는 것을 말한다. 즉 지는 변뇌가 없는 정적인 마음상태인 선정을 가리키는 말이며, 관은 선정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상태인 지혜를 나타내는 말이다.

부처님이 수정주의의 선정설(禪定說)을 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지(止)의 상태에 머물러버리는 선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고(苦)에서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지(止)의 선정에서 더 나아가 연기의 법을 관찰하는 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관쌍수(止觀雙修)의 선정설을 확립하였다.

원시불교의 주요한 선정설로는 사선(四禪), 팔등지(八等持), 구차제정(九次第定)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사선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선정이 가미되어 성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① 사선(四禪)–초선(初禪), 제이선(第二禪), 제삼선(第三禪), 제사선(第四禪)

② 팔등지(八等持)–사선+사무색정(四無色定 : 공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識無邊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③ 구차제정(九次第定)–팔등지(八等持)+멸진정(滅盡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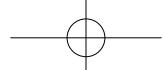
부파불교의 대표적 선정설로는 사념처관(四念處觀)과 오정심관(五停心觀)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염처(念處)란 곧 정신통일을 말한다.

1) 사념처관(四念處觀)

① 신념처관(身念處觀) – 이 몸이 부정(不淨)하다고 관함(觀身不淨).

② 수념처관(受念處觀) – 고락(苦樂) 등 감각작용이 모두 고(苦)라고 관함 (觀受是苦).

③ 심념처관(心念處觀) – 의식(識心)이 생멸하여



항상하지 않음을 관함(觀心無常).

- ④ 법념처관(法念處觀) – 제법이 인연으로 생겨 남으로 무자성(無自性)임을 관함(觀法無我).

2) 오정심관(五停心觀)

- ① 부정관(不淨觀) –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닦음. 육체의 부정한 모양을 관찰하게 하여 자신의 육체에 대한 탐욕심과 집착심을 끊게 만드는 선정의 수행.
- ② 자비관(慈悲觀) – 화[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닦음. 일체의 중생이 과거생으로 보면 모두가 나의 부모 형제 아님이 없음을 관찰하여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분노와 화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정의 수행.
- ③ 인연관(因緣觀) – 전도(顛倒)된 사고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닦음. 일체의 모든 것은 인연[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여 도리에 맞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선정의 수행.
- ④ 계분별관(界分別觀) – 모든 존재를 실체로 보아 아집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 무아(無我)를 통찰하게 한다. 일체의 현상하는 모든 존재(오는, 십이처, 십팔계)는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여, 모든 존재를 바르게 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선정의 수행.
- ⑤ 수식관(數息觀) –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 닦음. 자연계의 대기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호흡을 세계하거나 관찰하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선정의 수행.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 선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으로서는 대략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능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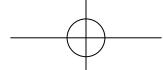
의 공사상은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설하고 있는데, 일체 모든 것은 연기(緣起)하여 자성이 없으므로(無自性)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자성(無自性)의 공(空)을 체득하는 것이 대승선(大乘禪)의 요체이다. 『금강경』에서는 ‘즉비(即非)의 논리’로 공(空)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 즉 “불법은 불법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불법이다.(佛法者 即非佛法 是名佛法)”라고 하는 즉비의 부정의 논리를 전개하여 공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무주(無住)사상 역시 선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를 통하여 설하고 있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상즉상입(相即相入)의 논리는 중생이 바로 부처(衆生即佛)라는 돈오선(頓悟禪)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유마경』의 “번뇌 즉 보리(煩惱即菩提)”, “생사 즉 열반(生死即涅槃)”이라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은 선의 실천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능가경』에서는 자각성지(自覺聖智)의 여래청정선(如來清淨禪)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나는 최정각(最正覺)을 이룬 그 날 밤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자(一字)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일자불설(一字不說)’을 주장하여 ‘이심전심, 불립문자(以心傳心 不立文字)’의 선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승선사상은 중국불교에 전승되어 선종의 핵심종지로 발전되게 된다.❷

〈계속〉



우리 선(禪), 우리 말투

오 윤 희(언해불전연구소장)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그동안 한문으로 기록되어 온 많은 책들이 우리 글, 우리 말로 번역되었다. 그 중 불교 경전을 번역한 것을 불전언해, 언해불전이라 한다. 왕실과 간경도감 등 중앙관서에서 간행을 주도해 그 언어가 중앙의 상층부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지만 옛 스님들은 우리 말, 우리 글로 불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하셨는지 살펴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오직 네 눈 앞에 번드기 또로 밝은, 얼굴 못할 것

이사 설법 청법을 아느냐’ 하시니

1467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수심결언해(修心訣諺解)』의 구절이다. 임제의 말씀이다. 역력고명(歷歷孤明)을 “번드기 또로 밝은”이라고 새긴다. “얼굴 못할 것”은 물형단자(勿形段者)의 번역이다. 저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다. 임제의 말씀을 저렇게 온전한 우리 말로 읽는 일은 경이롭다.

질(質)은 꾸밈없는 믿얼굴이라

믿얼굴은 본질(本質)을 가리킨다. 15세기에 얼굴이란 말은 본질이란 뜻이었다. 형단(形段), 얼굴은 살이고 모양이다. 물건에는 다 얼굴이 있다. 물(勿)이란 글자는 물론 부정의 뜻이다. 그렇다면 얼굴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 아래에 ‘……이사’라는 토를 달았다. 요즘 말로 치자면 ‘……이라야’에 해당하겠다. 이 토를 따라 읽자면, 이 말은 단호한 부정이 아니다. 저 토는 저 구절을 있고 없고의 경계에 세운다. 선택의 경계이다. 한문으로 된 임제의 원문에 이런 어감은 없다. 행간에서, 글자 사이에서 알아서 챙겨야 한다. 『수심결언해』를 번역한 사람은 우리말, 우리글의 어감,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말이 익숙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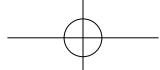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그만큼 분명해진다. 『수심결언해』 만이 아니다.

15세기 언해불전은 이런 우리말로 가득 차 있다.

이같이 사뭇 알지 못한다면, 얼굴대가리에 거리끼리라
얼굴대가리, 이런 말도 있다. 형각(形殼)을 이렇게 새겼다. 얼굴은 형질(形質)이고 대가리는 껌데기다. 대가리 안에 얼굴이 담긴다. 조선의 선사(禪師)들은 어록을 이렇게 읽고 소통했다.

이 달에 상께서 언문(諺文) 스물여덟 자를 지었다.
문자(文字)와 우리나라 이어(俚語)를 모두 쓸 수 있다.
세종실록의 구절, 문자는 물론 한문을 가리킨다.
문자에 대하여 언문이란 말을 쓰고 있다. 새로 만든 글자이다. 이에 비해 언어(諺語)는 속담에 가깝고 이어(俚語)는 속어에 가깝다. 동네 사람들, 배우지 못한 이들도 일상에서 쓰는 말이다. 누구나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솔직한 말, 때로는 저속하고 막된 말이다. 누구나 그런 말을 그런 글자로 적고 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로도 부처도 될 수 있고, 조사도 될 수 있게 되었다.

반다기 주(住)한 곳 없이 하야 그 마음 낼지니라
옹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 육조 혜능은 이 구절을 저자 바다에서 들었다고 한다. 이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요즘 개돼지니 흙수저니 유행을 한다지만, 혜능이야 말로 흙수저의 표본이었다. 그는 남방의 오랑캐였고, 어려서 아비를 잃고 나무꾼으로 근근 살아가던 가난뱅이 청년이었다. 더러운 모습에 글자라고는 접해본 적도 없는 무식쟁이였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낯고 천한 존재였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저 말을 동네 말로, 쉬운 말로 풀어 주었다.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육조 혜능이 없었다면 선(禪)은, 불교는 또 어찌 되었을까? 일자무식 노행자의 역사가 그러하듯, 누구나 알 수 있는 동네 말, 언어(諺語)와 이어(俚語)의 역사야 말로 선(禪)의 참 맛이 아닐까? 15세기 언해불전은 우리 선불교의 언어관, 우리 말투를 상징한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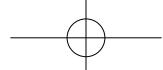
고려 말 나옹의 노래라고 한다. 오랜 세월 다만 입으로 전해 온 노래, 이 노래가 은근 인기다. 불교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곧잘 따라 부른다. 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쉽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듣자마자 느끼기 때문이다.

나옹의 글은 손가는 대로, 초(草)를 잡는 법도 없이 진실한 이치를 토해낸다. 산뜻하게 적어내니 말투가 낭랑하다. 그러나 세속의 글에 대하여는 깊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노래에 이르러서는 마치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 반드시 정교하게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여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영가(永嘉)의 구법(句法)을 본떴겠는가? 뒤에 서역으로 전해진다면 마땅히 알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옹의 문집에는 『나옹삼종가』라고 알려진 세

편의 긴 노래가 담겨 있다. 위의 글은 목은 이색이 나옹의 노래에 부친 후기이다. 나옹의 노래를 영가의 구법(句法)이라고 평한다. 15세기 언해불전에 『남명집언해』라는 노래 책이 있다. 당나라 영가가 지은 『증도가』에 송나라 남명이 자신의 노래를 덧대어 불렀다. 나옹의 노래는 『증도가』의 말투를 따랐다. 동아시아 불교 국가 가운데서도 고려 불교는 유난히 『증도가』를 좋아했다. 언해불전에는 영가의 『선종영가집』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언해불전 『금강경삼가해』는 함허의 『금강경오가해설의』 중에서 야보와 종경의 착어와 송, 그리고 이에 대한 함허의 설의를 따로 묶은 책이다. 세종과 문종, 수양이 함께 번역을 시작했고, 성종 조에 학조가 번역과 주석을 마쳤다. 함허, 신미, 학조는 모두 나옹-무학의 문도였다. 15세기 언해불전의 우리말투는 우연이 아니다. 영가의 말투를 이어 나옹 - 무학 - 함허 - 신미 - 학조로 이어지던 우리말의 전통이 있었다. 삼국시대 불교가 이 땅에 들어 온 뒤로 꾸준히 이어 오던 우리말의 역사가 있었다. 글자가 없던 때에도 말은 있었다.

얼마 전 공각기동대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1995년 나왔던 일본 SF 만화영화의 실사판이다. SF에도 계보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는 저 만화영화를 모델로 삼았다. 매트릭스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오마쥬를 통해 그 계보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공각기동대는 이미 전설이다. 20여 년이 흘러 공각기동대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우연이 아니다. 저 말을 만들고 떠드는 사람들도 모두 안다. 미래가 현실이 되는 일의 바탕에 저런 상상의 계보가 있었다. 그런데 저 영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낯설다. 저 만화영화가 처음 나왔을



●●● 우리 말 선사어록

때 왜색문화로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생사거래(生死去來) **나고 죽고 가고 오고**

붕두고리(棚頭傀儡) **붕 끝의 괴뢰**

일선단시(一線斷時) **외줄 끊어질 때**

낙락뇌리(落落磊磊) **현칠하고 당당하고**

저 만화영화를 만든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이 노래 하나로 설명한다. 15세기 일본 배우의 노래라고 한다.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블레이드 러너에 바친다. 공각기동대는 서구의 상상에 일본의 상상을 덧대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棚 끝에 곡도 놀리는 걸 보아라

빼며 이꿈이 전혀 속의 사람을 가차(假借)하느리라

속의 사람이 기량이 크니

좋음이, 맑은 허공에 조그만 흐린 것도 없는 것 같
도다

붕(棚)은 덕이다

이 노래는 임제 삼구의 한 구절이다. 그 아래 험허가 노래를 이어 불렀다. 학조가 저렇게 우리말로 새겼다. 붕두고리, 괴뢰를 “곡도”라고 새긴다. 괴뢰가 곡도이고 환(幻)도 곡도이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 대장경은 환인(幻人)과 환사(幻師)의 비유로 넘쳐난다. “붕 끝의 곡도” 선(禪)은 물론, 불교에 너무도 익숙한 비유이고, 이야기이다.

외외당당(巍巍堂堂) **높고 크고 당당하고**

뇌뢰낙락(磊磊落落) **당당하고 현칠하고**

각하선단아자유(脚下線斷我自由)

담박에 줄 끊으니 나는 자유

이건 조동종 천동광지(天童宏智 1091-1157)의 노래이다. 노래에도 계보가 있다. 공각기동대의 노래는 말하자면 당나라 임제와 송나라 천동의 노래

를 덧대어 부른 것이다. 요즘 말로 치자면 공각기동대는 임제종과 조동종의 콜라보, 협업으로 만들 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 컨텐츠라고들 하지만, 이 영화처럼 분명하게 선(禪)을 주제로 내세운 컨텐츠도 없다. 그런데도 이 영화가 선적(禪的)인 영화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고,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저렇게 설명한다. 공각기동대의 설명과 똑 같다. “연결과 자동화”라고 요약하기도 한다. 그걸 통해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돈이 생길 거라고 한다. 시장과 돈이 아주 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른다.

임제삼구, 괴뢰의 노래는 우리 선(禪)의 골수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 노래를 모른다. 그러는 사이 이 노래는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가 되고, 미래를 상상하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본어를 통해, 영어를 통해 이 노래의 뜻을 짐작하고 상상해야 한다. 일본의 문화이고 서구의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 외국어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눈 앞에 혁명이 닥쳤다지만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돈을 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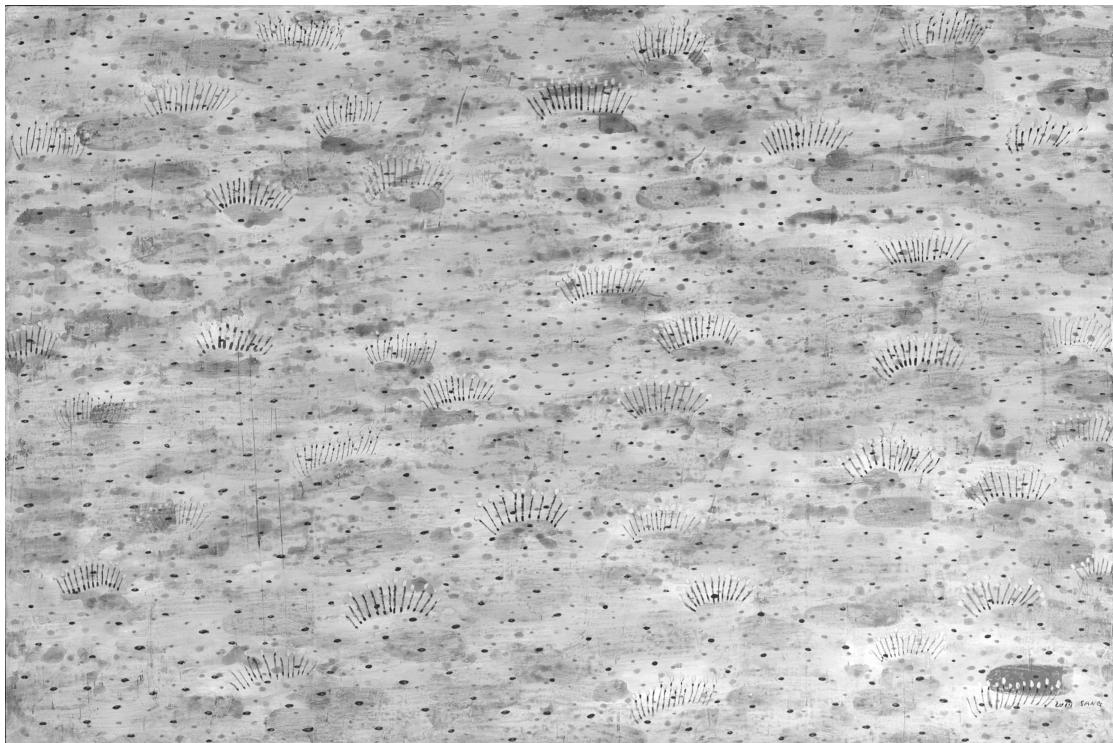
“붕 끝의 곡도”, 우리말 번역이 나온지도 육백 년이 흘렀다. “곡도의 노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고려와 조선의 선사(禪師)들은 우리 선(禪)의 본(本)과 함께 우리 말의 본을 찾았다. 그들이 찾은 본, 선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말의 본은 아주 잊혀지고 말았다. 말이 어려우면 그만큼 멀어진다. 개돼지, 흙수저, 우리 젊은이들이 “곡도의 노래”를 진작 알았다면 어땠을까? 조금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혁명의 시대에도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15세기 언해불전의 우리말투가 참 아깝다. ◎



● ● ● 쉬고 또 쉬고

연꽃

희상 스님



동백꽃 가득한
지심도에 다녀왔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돌아온 배 안에서도
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 몸이 불구인데도 좋은 곳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고……

영감님 자랑을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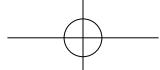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두 분의 미소가
잔잔합니다.

연꽃은
산꼭대기에서

필 수 없나 봅니다.

쉬고 또 쉬고

17



●●● 수행자의 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심왕명(心王銘)』

여현 스님(동국대 강사)

가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요즈음처럼 세상이 미세먼지에 부옇게 덮이는 날이면 저 하늘 위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다보면서 특히 ‘생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저 작은 미세먼지처럼 분명히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느낌이 든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계절에 따라 존재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등등 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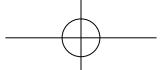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저 자신이 갖는 관심사에만 흥미를 느끼며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니면 뜨거운 쟁점이 되는 세상사에 눈길을 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논점으로 떠오르는 일에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미세한 것 보다는 굵직한 일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된다.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흘러가버린다.

문득,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얼마나 많은 수행자

들이 존재했었을까 궁금증이 일었다. 시간과 공간을 통찰해서 살펴보고 싶다. 불기 2561년이라는 시간을, 불교가 스쳐지나간 공간을 헤아려보고 싶다. 아마도 불교 수행자들은 ‘항하사수’라고 불리는 갠지즈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지금 우리 눈앞을 뿌옇게 가리는 미세먼지처럼 겨우 석 자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그 많은 수행자들.

인도 나란다 대학 유적을 찾아간 적이 있다. 개인 수행처라고 하는 방에 뎅그러니 남아 있던 침대 정도의 둘침상과 그 앞의 작은 공간을 보면서 애잔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온 종일 참선 수행을 하고 밤이 되면 저 침상에 고단한 몸을 뉘었을 수행자들.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정진하며, 고뇌하며 지냈을 것인가. 이 자그마한 방 안에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 모를 수행자들은 모두 다 온데간데없고 허물어져 버린 이 방만 남아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방을 엿보면서 너무도 치열하게 수행했을 그들, 수행자들의 청정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겨우 사람 몸 하나 뉘일 수 있는 좁디좁은 공간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처절하게 수행을 하던 이들의 흔적이 온 몸으



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치열함이 우리에게 불교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듯 하고, 시간을 초월한 수행자의 고뇌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큰 스승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이끌어 온 이야기는 많이 접한다. 훌륭한 인물이 끝없는 자비로써 중생을 대하는 모습은 저절로 감동을 받게 한다.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수행자들도 큰 스승들과 함께 치열한 수행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말이다. 내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수행 공덕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미친다. 큰 공덕과 적은 공덕이다 하나가 되어 우리들을 진리의 문 앞으로 이끌어 간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도해 준다.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으로써는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철저하게 수행을 했던 수행승으로 부대사(傅大士, 497~569)가 있다. 부대사는 달마대사와 같은 시절을 보냈지만 중국 선종계에 들어오지 못한 인물이다. 양나라 말기 사람으로 무주선혜(婺州善慧)이며 진초(陳初) · 동양(東陽) 거사라고 불린다. 24세 때 송(崇) 두타[달마라고도 함]에게 감화를 받고 송산(松山)에서 숨어서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때때로 무애행으로 대중에게 존경을 받아 미륵이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또한 양무제의 귀의를 받았으며, 문답과 강경을 했다고 전한다. 후대에 「벽암록」과 「선문염송」에도 다루어지는 인물이지만 초기 선종에서는 묻혀 지나가는 수행승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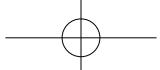
초기 선에 속하는 부대사에게 『심왕명(心王銘)』

이라는 작품이 남아있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훨씬 벗어난 시대에 편집된 『경덕전등록』 권30 첫 머리에 나온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달마시대의 작품일까라는 의구심이 듦다. 아마 달마의 8대손인 마조도일 시대 정도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물론 불교는 끝없이 마음에 대한 탐구를 요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마음이 부처라는 관점을 다루는 것을 보면 부대사의 작품이라는 것에 살짝 의문이 올라온다. 아니 너무 시대보다 앞선 선구자적인 관점을 지녀서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 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마음과 좌선, 그리고 안에서 찾아야 될 것, 오염의 논의 등 지금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톡 던져놓은 글이다.

『심왕명(心王銘)』은 짧은 글에 속하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사들의 심경을 전하는 글귀들을 모아놓은 『경덕전등록』 권30에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동국대 역경원에서 4권으로 발간한 『경덕전등록』의 마지막 4권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원문은 실려 있지 않고 한글 해석본만으로 이루어졌다. 한글이라 쭉쭉 쉽게 읽어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짧아서 빨리 읽을 수 있으니 몇 번쯤 단숨에 훑어 읽다보면 부대사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중간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라고 당부하듯이 한 번 쯤 잘 살펴야 될 것이 마음이리라. 비록 짧은 글귀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의구점과 수행의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 씀씀이를 부대사의 말처럼 오늘 당장 한 번 해보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부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시길!! ☺



●●● 사찰숲 이야기

봉암사에서 온 세상으로… 부처님 법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사찰림연구소 부소장)



〈희양산과 대웅보전 그리고 소나무숲〉

봉암사 결사

희양산 봉암사는 신라 말 구산선문 희양산파의 개산조인 지증대사(智證大師)가 지금부터 약 1,100년 전 신라 현강왕 5년에 창건하였습니다. 이후 고려 태조 18년 정진대사가 중창하였고,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것을 1955년 금색전을 비롯해 여러 건물을 재중창하여 현재의 도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증대사가 봉암사를 개산하여 선풍을 크게 떨치니 이것이 신라 후기에 새로운 사상흐름을 창출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입니다.

1974년 가을, “부처님 법대로 살자.” 며칠은 스님 30명이 시퍼런 수행열기로 봉암사에 모였습니다. 봉암사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농사지어 먹고, 직접 옷 지어 입으면서 묵언, 면벽좌선 하면서 치열하게 수행했던 결사입니다. 지금도 조계종의 종지종풍(宗旨宗風)으로 ‘봉암사 결사’를 듭니다. 따라서 1982년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특별수도원(종립선원)으로 지정하고 산문을 폐쇄하였습니다. 요즘도 부처님 오신 날이나 특별한 결사가 없는 한 산문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의 수행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봉암사 결사 7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봉암사에서 새로운 결사의 바람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백두대간과 희양산

안겨 때가 되면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해야 할 봉암사가 가끔은 등산객들과 뜻하지 않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봉암사의 주산인 희양산이 백두대간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으면서 봉암사의 수행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2002년 희양산을



〈금색전과 3층석탑과 희양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설정을 통하여 산림의 관리를 산림청에 위탁하고 난 뒤에는 등산객들이 봉암사에 들어가 수행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또한 봉암사의 수행환경을 수호하고 사찰림을 등산객들의 위해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스님들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주도하여 희양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을 이용하여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스님들의 강력한 반대로 막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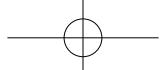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능선으로 한반도의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산줄기입니다. 신경준(1712~1781)이 작성한 ‘산경표’에서 정리된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경표’를 신경준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체로 신경준이 작성했거나 신경준의 영향이 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금강산, 진부령,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태백산, 소백산, 죽령, 속리산, 추풍령, 민주지산, 덕유산을 걸쳐서 지리산에 이르게 됩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능선의 산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명산이고 불국토입니다. 그 중에서 봉암사의 주산인 희양산은 죽령과 속리산 사이에 있습니다.

희양산 봉암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산림 내의 생물다양성 즉, 생물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산림을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희양산 봉암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사찰 또는 조계종의 힘만으로는 국민들의 개방 압력을 지켜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가의,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지켜내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계곡물은 급속도로 맑아졌고, 화전민이 일구었던 화전들도 본래의 산림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상태의 모습들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희양산 산림 특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식생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식생은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잣나무조림지, 일본잎갈나무(낙엽송) 조림지 등의 군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 종류 군락은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고르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현재의 군락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나무 우점 군락은 대부분 참나무 종류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 사찰숲 이야기

적으로 볼 때 향후 소나무 우점 군락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참나무 종류의 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양산의 생물들



〈고리진달래〉

을 가진 진달래 종류입니다. 진달래라 하니 연분홍 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고리진달래의 꽃은 흰색입니다. 크기도 아주 작아 많은 꽃들이 모여 송이를 이룹니다. 봉암사의 산내암자인 백운암의 아담한 앞마당에는 잘 자란 고리진달래 한 그루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수행자에게서 많은 정을 받은 듯합니다. 백련암 앞 계곡 주변에 자라는 제법 큰 왕초피나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희양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라서 멀리서 바라보면 하얀 산입니다. 최치원은 지증대사 적조탑비 비문에서 희양산을 ‘산이 사방에 병풍같이 둘러막고 있음을 보니 봉황의 날개가 구름 속에 치며 올라가는 듯하고, 물은 백 겹으로 띠처럼 흐르니 용이 허리를 돌에 대고 누운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산이 깊고, 물이 맑으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월봉토굴에서 가까운 샘이 나는 곳에는 진흙들이 있고 멧돼지들이 목욕을 하느라 질퍽거린 자국들이 언제나 새롭게 남습니다. 경중거리며 뛰어다니



〈수달을 돌보는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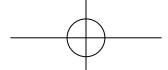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는 고라니도 있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멧토끼도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연중 내내 흐르는 용암봉

곡에는 물이 너무 맑아 물고기 종류는 많지 않지만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장마로 인해 탈진한 새끼수달이 봉암사 경내로 들어와 스님들께서 돌보다가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달 외에도 까막딱따구리, 원앙, 소쩍새, 올빼미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왕초피나무〉

동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식물들도 그 종류가 다양하여 공양간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산채를 나서기도 합니다. 산채한 나물들은 데쳐서 말려두었다가 연중 수행하는 스님들의 좋은 공양거리로 제공됩니다. 참나물, 고사리, 삽주 쌈, 다래 순, 참취, 두릅 같은 나물종류들도 있고, 다래, 머루, 돌배 같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희양산이 주는 소중한 먹거리들입니다. 먹거리들 말고도 고란초, 솔나리 등의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생육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희양산의 소나무들은 희양산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희양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주요 대상 수목은 소나무로 2002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숲이 된 겁니다.

봉암사의 숲 이야기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은 전국적으로 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암사도 소나무 위주로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소나무가 계속 유지될 지는 의문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자연 재해로 인해 나무들에 쉽게 병이 옵니다. 소나무는 본래 극지방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추운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참나무 종류인 신갈나무가 중심이 되는 숲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참나무가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나무들이 자라는 숲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은 대체로 기운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말라죽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잘 자라는 소나무가 참나무들에게 햇빛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나무를 참나무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송화가루, 건축용 목재, 송순, 솔잎, 송진, 속 등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이긴 합니다.

봉암사 포행길을 다니다 보면 낙엽송과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잣나무가 많은 곳은 그 전에 모두 밭이었던 곳입니다. 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산림수종갱신사업으로 전국의 나무들을 자르고 심고했던 시기에 화전민들이 이주하고 그들의 밭이었던 지역에 모두 잣나무를 심어서 지금의 잣나무

부처님 법은 자연의 법

부처님의 연기법(緣起法)은 우주의 질서를 정의합니다. 숲에서도 이 질서는 지켜집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과 무생물은 물질순환의 균형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무로 돌아가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물과 무생물의 균형, 물질과 물질의 균형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자연의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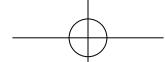
봉암사의 사부대중들은 이런 법을 잘 지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비누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마을의 가축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것들은 퇴비장에 모아서 퇴비로 숙성시켜 농사에 이용합니다. 농사는 한 2천 평 정도 짓습니다. 주로 감자, 배추, 무, 고추, 옥수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 저장해두고 1년을 먹습니다. 사찰립 관리를 위해 간벌한 나무들은 밥 할 때나 아궁이 불 땔 때에 이용합니다.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고 어디 한 곳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쌓이는 것이 없도록 순환하고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법칙을 잘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봉암사의 이 모든 삶이 수행이고 무위의 부처님 법입니다. ☺



사찰숲 이야기

23



당나라 시대, 세 선지식을 섬긴 배휴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

배휴(裴休, 797~870)는 당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이다. 하남성 맹주 제원 출신이다. 목종 때, 진사시험을 거쳐 정치인이 되었고, 852년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와 중서시랑(中書侍郎)을 역임했다. 문장에 능했고, 글씨도 잘 썼으며, 교양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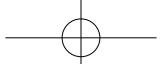
이 배휴는 당대의 기라성 같은 선사 세 분을 스승으로 섬겼다. 처음에는 규봉 종밀(圭峯宗密, 780~841)을 섬겼으며, 다음에는 위산 영우(鴻山靈祐, 771~853)와 황벽 희운(黃檗希運, ?~856)을 스승으로 모셔 공부하였다. 다음은 이들과의 인연 이야기이다.

선종 5가 가운데 산문을 최초로 개산(開山)한 선사는 위양종(鴻仰宗)의 위산 영우이다. 황벽 희운과 사행사제인 위산은 회창폐불(845~847)이 일어나자, 머리를 기르고 재가자로 살았다.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당시 호남관찰사 배휴가 무종의 다음 황제인 선종[847~859년 재위]에게 폐불령을 풀도록 주청하고, 위산에게 재출가를 권유하였다. 배휴는 위산을 가마에 태워 호남성 영향 동경사(同慶寺, 현 密印寺)로 모신 뒤, 선사의 제자들과 상의해 머리카락을 삭발해 드리고자 하였다. 이에 위산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머리카락이 없어야 부처라고 생각하는가?”
배휴는 위산 영우가 동경사에서 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위산은 동경사를 배경으로 선을 펼쳤다. 이후 위산 문하에 1,500여 명의 제자가 모였다.

배휴는 위산에 이어서 황벽 희운과 인연을 맺었다. 황벽과 배휴와의 처음 만남은 드라마틱한 기연(機緣)으로 『전등록』 권1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벽이 대중을 떠나 이름을 감추고 대안정사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낼 때이다. 마침 배휴가 와서 불전에 참배하고 벽화를 감상하고 있었다. 벽화를 보던 배휴가 주지에게 물었다.

“저 그림은 누구의 초상입니까?”
“고승의 초상입니다.”
“영정은 여기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지가 아무 말도 못하자, 배휴가 ‘이 절에 참선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요즘 어느 객승이 머물며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인 것 같습니다.”
곧 황벽이 도착하자, 배휴가 물었다.
“제가 아까 스님들께 ‘영정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배휴!”

황벽의 큰 일갈에 배휴가 놀라 얼떨결에 황벽을 쳐다보았다.

“그대는 어디 있는가?”

이 이야기는 황벽형의(黃檗形儀)라는 공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배휴가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몰라서 황벽이 소리쳐 불렀을까? 스스로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염념(念念)에 잊지 않고 자각시키고자 하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황벽이 배휴에게 ‘고승의 초상이 누구인지?’ 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고승을 보고 있는 자신의 존재 자각이 더 중요한 것임을 경책하는 것이다.

황벽의 시호는 ‘단제’ 인데, 배휴의 권유로 당나라 선종이 내린 것이다. 선종이 황제가 되기 전, 13살 때 왕실에서 추방되어 염관사라는 절에 머문 적이 있는데, 당시 황벽도 그 절에 있었다. 황벽이 예불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선종이 ‘왜 부처를 신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불을 올리느냐?’고 물었다. 황벽은 선종에게 대답은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뺨을 몇 차례 때렸다. 이후 선종이 황궁으로 돌아와 황제가 되었다. 몇 년후 재상인 배휴가 선종에게 황벽의 시호를 하나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선종은 황벽에게 뺨 맞았던 옛일을 떠올리며 추행사문(龐行沙門)이라는 호를 내렸다. 이에 맞서 배휴가 ‘폐하에게 3번 손찌검을 한 것은 3세의 윤회를 끊어주기 (斷) 위함입니다.’ 라고 하자, 선종이 마음을 돌려 단제(斷際)라는 호를 내려 주었다. 황벽의 탑명에도 「開山始祖希運斷際禪師之塔」 이라고 되어 있다.

배휴는 처음 규봉 종밀[화엄종의 5조이며 하택종의 5조]에게 가르침을 배웠지만, 황벽을 만난 이후로는 황벽의 선기(禪機)에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휴는 황벽을 만나기 이전 규봉 종밀에게 사사하고, 종밀의 여러 저서에도 서문을 지었다. 배휴가 황벽에 대해 평을 하였는데, 『전등록』에 이렇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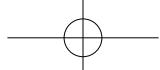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나는 규봉 종밀 선사가 선과 교에 달통한 분으로 매우 존경했지만, 황벽선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보니, (이전 종밀에 귀의했던 것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용문 하나로만 보아도 배휴가 황벽에 대해 신뢰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배휴는 회창 2년(842년) 강서성(江西省) 종릉(鐘陵)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황벽의 명성을 듣고 황벽을 홍주(洪州; 현南昌)의 수부(首府)로 모셔다가 용홍사에 머물게 하고, 조석으로 도를 물었다.

그러다가 배휴가 대중(大中) 2년(849년)에 완릉(宛陵)의 관찰사로 전임이 되자, 예를 갖추어 황벽을 다시 개원사로 모셨다. 여기서도 선사에게 아침저녁으로 도를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황벽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필록(筆錄)해 두었다가 황벽이 입적한 뒤에 황벽의 제자들과 장로들의 증명을 받아 세상에 유포시킨 어록이 『전심법요』와 『완릉록』이다. 이 어록들은 고금의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

배휴가 황벽의 어록에 서문을 쓰고 편찬했는데, 배휴가 아니었다면 황벽의 선사상은 사장되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다. 스승[황벽]과 제자[배휴]간의 인연이 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



●●● 수행의 현장 ④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 2

정리 :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회는 선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종립 특별수도도량 봉암사와 함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세계의 명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명상센터 건립 운영에 참고하고자 지난 2016년 1~4월 중 유럽, 미국, 일본의 여러 국제선센터들을 답사하였다.



〈다양한 건물들로 구성된 LAZen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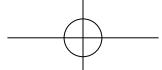
LA 젠센터 (The Zen Center of LA)

1967년 일본 삼보교단(조동종 묵조선을 기반으로 임제종의 공안을 활용하는 일본 선종) 선승 마에주미 하쿠유 타이잔(1931~1995)이 건립한 LA 젠센터(이하 약칭, ZCLA로 표기)는 일본계 선수행센터이다. 조동종과 임제종의 의식과 관습을 셰신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삼보교단은 승속을 구별하지 않고 선의 근대화, 탈신비화에 주력, 미국에서의 전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ZCLA는 100년이 넘은 5동의 건물과 2개의 아파트를 가진 대규모 도심 선센터이다. 처음에는 건물

한 동에서 시작했다는데 주변 집들을 하나하나 사들이면서 많은 방과 방들을 일본 특유의 정갈함과 간소함이 드러나도록 잘 수리하고 관리해 온 흔적이 역력했다. 웬디 나카오 원장 스님에 따르면 정식 신도는 180~200명 정도이며 스님 및 회원 거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라고 한다. 그 중 30여 명이 선센터에 거주하면서 수행과 지도,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단기 체류 수행자들이 평소 100여 명에 이른다니 놀랍기만 한다.

ZCLA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한다.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 좌선은 매주 목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에 하며 매일 불경을 외우고 두 달에 한 번씩은 하루 24시간 용맹정진을 한다. 또 새로 오는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좌선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ZCLA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는 수행자들이 둥글게 원형으로 둘러 앉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가르침을 새기는 날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은 모두가 함께 운역하는 것이라고 한다.



샌 프란시스코 선센터 (San Francisco Zen Center)



〈샌 프란시스코 선센터 선원 내부〉

초심자를 위한 별심사(發心寺)라고도 불리는 샌 프란시스코 선센터는 1969년 순류 스즈끼 로시 선사가 일본 조동종 수련시설로 일반 대중을

위해 세웠다. LA 젠 센터나 마찬가지로 이곳도 처음에는 유대교 공회당 건물을 한 채 사들여 시작했으나 교세가 커지면서 주변 건물들을 하나하나 사들여 지금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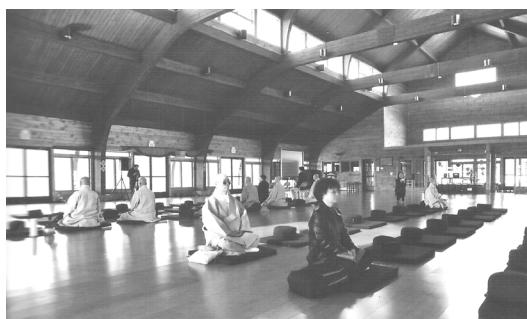
이곳은 또 ‘시티 센터(City Center)’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멜 밸리에 위치한 타사하라 선센터(Tassajara Zen Mountain Center)를 ‘산 센터(Mountain Center)’라 칭하는데 따른 별칭이다. 타사하라 센터는 선심사(禪心寺)라고도 하는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선농일치 수행을 하는 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9월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며, 선수행 지도도 한다.



〈타사하라 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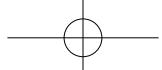
미국 서부 선센터를 대표한다는 샌 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방문한 날이 마침 정기법회가 열리는 토요일이었다. 실리콘밸리가 가깝기는 하지만 법당 가득 젊은 미국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미처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식당에 앉아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시티 센터에서는 일일 명상과 지도, 격주로 다르마 토론, 불교교실, 워크숍, 기숙 수행프로그램, 선수행자의 영적 실습을 위한 토론회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명상에 처음 참여하는 초보자 또는 수행 중 의문이 있는 이들은 언제라도 사무실을 통해 지도법사와 일정을 조정, 면담, 토론을 할 수도 있다.



〈방문하는 곳마다 앉아 정진해 보시는 참관단 스님들〉

이외에도 참관단은 상좌부 불교의 전통적 뿌리를 가지는 레드우드 밸리에 자리한 20여 명의 수좌들이 수행하고 있는 아바야기리 수도원을 비롯해 위빠사나 수행공동체인 스피릿 락 명상센터, IMS 치유센터, 원불교 미주 총부 역할을 함께 하는 원다르마 센터, 베트남 턱낫한 스님이 설립한 부루 크리프 수도원 등등을 두루 돌아보았다. ◎◎



운회의 삶에서 벗어나리! (상)

본정하 (이상준, 봉은사 신도)

나는 오늘도 새벽에 집을 나선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인사와 함께. 자동차에 오르면서는 차를 토닥토닥해주며 마음을 전한다. 이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선원까지 잘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이다. 참선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내 모습이라고 할까!

집을 나서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집중하려 한다. 하지만 늘 마음은 몸보다 먼저 이리저리 내달려간다. 얼른 마음을 데려와 화두를 듣다. 가만히 있으라고, 집중하라고 마음에게 이른다. 잠시 잠깐도 집중을 못하는 내 마음이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온다.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연지해수관음보살님 전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발원하며 목례 삼배 예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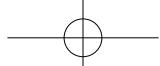
이 시간, 깨어 있음에 감사한다. 그 시간,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구한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며 내면 깊숙이 회광반조하려고 애를 쓴다. 조금 전 차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육신을 데리고 온 그는 어디 있는가! 일분일초도 이 몸을 떠난 적이 없는 그 놈을 어서 찾으라고 고구정녕 일러주시는 송담 스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다시 한번 분심을 낸다. 겨우 두세 시간에 불과한 아침 정진이지만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세속의 하루를 여는 출근길로 접어들며 오늘도 행복한 내 하루가 기대된다.

어느 날이었다. 성철 큰스님 법문을 불교TV를 통해 듣게 되었다. ‘경전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느냐?’는 외국의 어떤 교수가 보낸 편지 질문에 스님은 ‘땅 파면서 달 찾는 격이다.’라고 답하셨다. 또 ‘팔만대장경은 부처가 되는 약방문이다. 이 약방문으로 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바로 참선이다.’라고도 하시는 것이었다.

열심히 법문을 들었건만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깨달음이 뭔지, 도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 그저 기도만 하던 나였는데 그 날의 법문은 어쩐 일인지 자꾸 되새겨지고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뭐지?

덕분에 성철 큰스님 법문집, 참선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게다가 집 근처에 작은 선원이 개원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막 관심이 생겨난 지라 저녁 시간에 찾아가 보았다. 안내해 주는 이도 없어 막무가내로 기웃기웃해보니 몇몇 거사, 보살님이 벽을 보고 조용히 앉아 계셨다. 나도 방석 하나 챙겨들고 한 자리 차지하고 벽과 마주 앉았다.

그러기를 일주일 여. 난 그냥 앉아만 있었다. 아무도 내게 어떻게 해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옆 자리에 앉아 있는 분에게 묻기도 어려웠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벽을 보면 참선 기초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만 슬금



슬금 키웠을 뿐.

그 무렵이었다. 한 도반 보살이 내 가게 오셨다가 기도며 경전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그 중에 해인사 아비라 기도와 개포동 금강선원 혜거스님의 경전공부 이야기가 마음에 콕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성철 큰스님께서는 해인사와 백련암을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아비라 기도 할 수 있다며 늘 권하셨다는 얘기는 그 도반 보살님에게 자주 들었던 얘기였는데 말이다. 그제서야 선연이 닿은 것이라.

곧 나는 백팔참회집을 찾아 들었다. 그리고 능엄주를 만났다.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구나.’ 싶었다. 당장 능엄주 독송을 시작했다. 교통사고가 나 입원치료하면서도 경전과 불서를 가져다놓고 읽었고 특히 능엄주 독송에 진력했다. 병원에서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독송도 어렵다는 능엄주를 입에 붙여놓아야겠다 싶어 참 열심히도 읽었다. 같은 병실을 쓴던 환우들 종교가 다 달랐고 대부분 기독교인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불자들은 자기 종교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난 늘 능엄주를 외고 있으니 ‘무슨 보살인가 보다.’고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줄 짐짓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여북했으면 하루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와서는 『반야심경』을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난 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당연히 알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어느 날이었다. 잠에서 설핏 깼는데 내가 연신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입 속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굴려지고 있는 느낌이 완연했다. 처음에는 무심히 꿈을 꾸는 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뭐하는 거지?’ 싶

었었다. 이와 똑같은 경험을 몇 번 더 하고 나서야 그게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잠에서는 분명 깨어 났는데 나도 모르게 입으로 뭔가를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이었다. 능엄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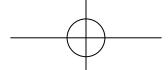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자면서도 능엄주를 계속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능엄주 해설서를 찾아 읽어보았다. 이 경을 읽고 수행을 하면 도를 이루고 윤회를 면한다고 한다. 솔직히 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윤회를 면한다는 구절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던지 이후 난 더 열심히 능엄주를 독송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간절한 내 기도 하나는 윤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더러 스님들이 왜 참선 공부를 하느냐고 물으신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인생을 사는 일은 자연의 이치이다. 평화롭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정작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삶의 치열함이 아니던가. 그에 비추어 수시로 나를 보곤 한다. 특히나 직업상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나로서는 더 이상 윤회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다.

문득 보리심 보살님이 뵙고 싶다. 눈 좋을 때 경전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격려해주시던 고마운 분이다. 헌데 금강선원 참선 이야기는 해주신 적이 없는 듯하다. 그것까지 알려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경전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뵙기가 어렵다. 당신이 경전 공부를 이야기해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참선공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리운 마음 한 커으로 죄송스럽다. ⑧

〈다음 호에 계속〉



● ●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추진 경과보고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 추진

- 봉암사는 땅 1평 사기 운동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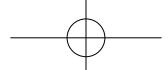
사업단장 박희승



- 지난 동안거 해제 직후, 봉암사에 새 주지 원광스님이 오셨습니다. 전 주지 석곡 스님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 주지스님이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 주지 석곡 스님께서는 명상마을 추진 예산 확보, 사유지 3,500여 평 매입을 통해 총 3만6천여 평 부지 확보 등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월 경에 문경시에서 명상마을 새 진입도로를 '시도(市道)'로 확정하고 건설비 2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도 및 예산 확보에는 중앙의 뜻있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님들과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 문경시 고윤환 시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 3월 초, 문경에서 상임추진위원회 의정스님과 공동추진위원장 수불스님, 상임추진위원 월암스님,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 박희승 사업단장, 이달균 건설본부장 등이 고윤환 문경시장님과 저녁 공양을 하면서 시장님의 공정한 시정 처리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후 명상마을 건립건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3월 말, 명상마을 부지 내 사유지 매입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부지 3만6천여 평의 소유권은 95% 해결하였습니다. 약 5% 남은 문제는 부지 내 문중 묘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만 협의할 예정입니다.
- 4월 초, 문경·영주 죄교일 국회의원과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장이 봉암사 주지스님과 면담하면서 한국 불교의 최고 성지 봉암사와 세계적인 명상센터인 문경세계명상마을 진입 도로 약 2.5km를 봉암사와 세계명상마을 위상에 맞는 명품 '명상로'로 조성하는 구상을 제안하여 문경시와 함께 중앙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4월 말, 명상마을 체험관 건립 사업 금년도 자부담사업비 10억 원을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에서 봉암사 자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제 명상마을 체험관 건립 자부담 20억 원을 확보하여 보관 중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9월까지 자부담 10억을 더 확보하여 총 자부담 30



억 원과 국고 30억 원을 합하여 60억 원으로 1단계 건축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추진위원회는 자부담 10억 원 확보를 위해 불자 기업가 화주와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상마을 부지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변경 추진건과 관련해서는 문경시와 경상북도의 원만한 지원 협조로 마지막 환경평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이 지구단위 변경 작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건립 추진위원회(상임추진위원장 의정)에서는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축설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바 경상북도와 문경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작년 9월에 개최한 국제선건축 세미나에 참가한 미국·영국·일본·한국 건축가 5인에게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실무는 동국대 조경학과 홍광표 교수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지명공모는 우리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모안을 공지하여 공모에 참가 의사를 밝힌 4인의 건축가와 파트너사가 함께 지난 4월 25일 봉암사와 문경세계명상마을 부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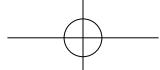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한국 김개천 국민대 교수팀(크레파스 건축), 미국 토마스 한라한 교수팀(현대

종합설계건축), 영국 알란 파워(창조종합건축)소장, 일본 미나미 야스히로 교수팀(엄앤드이종합건축) 등 약 20여 명이 봉암사와 부지 현장을 답사하며 지형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경북도청과 문경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공모는 오는 6월 말 접수 마감하여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그리고 건축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디 좋은 건축 설계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봉암사와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명상마을 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예산 2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도로 예정 부지가 약 50% 가까이 사유지라 이의 해결도 매우 시급한 관건이라 봉암사에서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와 봉암사가 함께 추진하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취지에 공감하여 사부대중의 후원 보시가 담지하고 있습니다. 5월 초 문경의 한 스님께서는 명상마을 취지가 너무 좋다면서 당신께서 평생 일군 토굴을 명상 건립에 보태라며 희사의 뜻을 전해주시어 법인에서는 중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흔연한 시주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 인류에게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간화선을 대중화, 국제화하기 위해 봉암사와 선원수좌회가 직접 추진하는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사부대중의 참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원회원이 되시는 분들께는 명상마을 프로그램 참여의 우선권은 물론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



● ● ● 대중알림판

● 2016년 동안거 의료비 지원현황

총 57건, 6천4백여만 원 지원

올해는 5월에 윤달이 들어 2016년 동안거 기간을 2017년 하안거 결제 직전일인 지난 5월 9일까지로 잡아 그간의 의료비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동안거 중에는 모두 57분의 수좌스님에게 6천4백여만 원(₩64,938,996원)의 의료비가 지원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원을 받으신 수좌 스님들이 매우 고마워하시고, 더 열심히 정진하겠노라는 굳은 다짐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계시기에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1,680여 명에 이르는 불자님들의 후원과 1,400여 명 수좌 스님들이 납부하는 복지회비, 꼼꼼히 잘 쟁겨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 참가자 모집

오는 9월 15일~17일까지, 수리선원에서

수좌 스님들로부터 직접 참선 수행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도 마련됩니다.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가 2017년 하안거 직후인 9월 15일(금) 입제됩니다. 예년과 달리 2박 3일 일정으로 양평에 위치한 본 법인 산하 수리선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단기안거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화선 단기안거는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

하여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자는 물론 수행 경험이 전혀 없는 초심자일지라도 수좌 스님의 지도로 거뜬히 함께 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9월 15일(금) 오후 2시 ~ 17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수리선원(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 참가비 : 회원 10만 원 / 비회원 12만원
• 참가 요형 : 참가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 30명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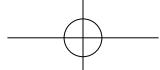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 유의 사항 :

- ① 참가 신청서는 공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 ② 참가비 입금은 신청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③ 참가 취소는 9월 7일(목)까지 가능하며 환불은 행사 종료 후인 9월 22(금)일 이내에 처리 예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 ④ 참가 확정자에게는 기재된 주소지로 안내문을 8월 31일 전후 우송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고, 혹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꼭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참가자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용품, 우산, 양말

● 윤5월로 2017년 하안거 결제, 해제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5월에 윤달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2017년 하안거 결제와 해제가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원은 음력 4월 15일 결제 및 음력 6월 15일 해제 예정입니다만 송광사 조계총림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남국선원, 보광사 보광선원, 개심사 보현선원, 약사암 일심선원 등 6개 선원은 음력 5월 15일 결제 및 음력 7월 15일 해제를 한다 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호 발간은 선원들의 이같은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한 사무국의 착오로 부득이 2차 결제 직전으로 맞춰 진행했사오니 이 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 오신 날, 봉암사에서 홍보활동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5월 3일,

조계종 특별선원 봉암사에서 홍보모연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봉암사 입구와 해회당 앞에 부스를 마련하고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사업과 수좌 복지지원 사업을 홍보, 모연하는 리플렛과 광고지를 배포하고 후원 신청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본 법인 홍보활동을 배려해 주는 봉암사 측에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홍보활동에 함께 해주신 이재엽, 엄영애 후원자님과 불교인재개발원 생활참선팀의 유희열 포교사, 한상남 님, 법광명 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간화선 수행으로 일상의 행복한 삶 이룰 수 있습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수좌 복지기금 후원 문의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02)922-9967

<http://www.seonsujoa.org>

e-mail : seonsujoa@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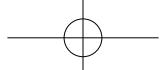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지정병원의 확보와 치료, 수좌 복지체계 확립의 지름길

제1호 지정병원 동보한방병원(치질, 치핵 치료 / 053-425-4085)

– 의료 전문의 불자님들의 큰 관심과 재능기부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인 복지사무처로 해주세요. ☎ (02)922-9967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 참가 신청서

2017년 9월 15일(금) ~ 17일(일) 양평 수리선원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법명		성별	남 / 여	나이	
연락처	(휴대폰) (기타)						
주소							
소속사찰				지역			
동반 참가자	이름	관계	후원여부	연락처			
간화선 수행 경험	유 / 무		수행기간				
참구 중인 화두	유 / 무		수행처				
참가 동기 (가급적 자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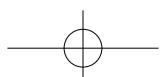
본인은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에서 개최하는
간화선 단기안거에 참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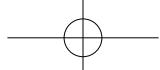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귀중

※ 제출처 : 팩스 02-923-9967 / E-mail seonsujoa@hanmail.net
입금계좌 : 농협 / 355-0015-6340-13 /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요망)





후원신청서

스님 □	정기 □	수좌 복지회비 납부 □	수좌 복지후원 □
	일시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
불자 □	정기 □	수좌 복지후원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
	일시 □		

※ 개인 정보 난은 정기, 일시 후원 모두, 꼭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스님	법명		속명	
		승적번호		은사	본사
		연락처		분류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
		거주지			
	불자	성명	법명	분류	남 □ 여 □
		연락처			
		주소			

※ 계좌이체 하실 분은 아래 cms신청 난에 기재 하지 마십시오.

※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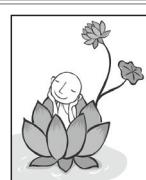
cms신청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번호	
	후원액	월 5천원 □	월 1만원 □	월 2만원 □	월 2만5천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기타()	□
	이체일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	
	봉암사 문경세계 명상마을 후원내역	땅 1평	10만원 □	서까래	300만원 □
		땅 10평	100만원 □	기둥(개당)	500만원 □
		땅 100평	1,000만원 □	대들보	1,000만원 □

상기 기재 사항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cms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불기 25 (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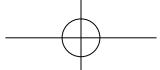
신청인 : 서명

- 후원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동참 내역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신청서는 팩스로 전송해 주시거나 www.seonsujoa.org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보내실 곳 : 팩스 02-923-9967, E-mail : seonsujoa@daum.net
-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전화 02- 922-9967로 해주십시오.



<후원계좌 안내>

수좌 복지회비 납부(스님, 사찰 전용)	농협 / 351-0441-2332-63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수좌 복지 후원	농협 / 355-0015-6340-13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농협 / 355-9967-9967-43	



후원 현황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 ~ 2017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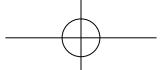
수좌복지 특별후원 사찰

백담사 무산 스님 / 내소사 철산 스님 / 봉암사 태영 스님

수자 복지 전기호원 스님 사찰 단체

법용사 주지 승혜스님 / 용화사 융화선원 심공스님 / 도성암 대선 스님 / 도안 스님 / 대혜 스님 / 미산 스님 / 법진 스님 / 범상 스님 / 보인 스님 / 보월 스님 / 선목 스님 / 선영 스님 / 성현 스님 / 일지 스님 / 진성 스님 / 해광 스님 / 해철 스님 / 진성 스님 / 대법보선원 / 속초 신흥사 / 군위 법주사 / 서울 월자사 / 대전 복전암 / 위봉사 위봉선원 / 봉선사 선재회 / 삼보정사 / 화장사 침선반

cms 수좌회비 납부 스님



선원별 수좌회비 납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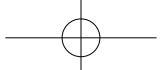
월정사 만월선원 / 불국사 불국선원 / 해인사 해인종림선원 / 백담사 무금선원
/ 정해사 덕승종림선원 / 망월사 천중선원 / 은해사 운부암선원

가볍소님	대성스님	명건소님	법진소님	성연소님	적문소님	지답소님
현진스님	각진스님	대전스님	명정스님	대보스님	수련스님	정경스님
지용스님	한해스님	스님스님	대현스님	명철스님	보륜스님	심인스님
정녕스님	지철스님	혜경스님	계오스님	대력스님	무궁스님	보행스님
영진스님	정인스님	창영스님	혜명스님	진진스님	무아스님	무아스님
불각스님	원건스님	조를스님	포대스님	해운스님	도석스님	고경스님
무영스님	불신스님	원봉스님	중광스님	하답스님	고승스님	고승스님
도원스님	무착스님	삼덕스님	원정스님	성종스님	현도스님	호진스님
광문스님	도혜스님	법천스님	서동스님	재현스님	중열스님	현성스님
황웅스님	금신스님	동각스님	법운스님	성보스님	중광스님	종우스님
한우스님	후담스님	금운스님	동혜스님	법인소님	성암스님	적로스님
지근스님	현전스님					

계좌이체 수좌회비 납부 스님

수좌복지 cms 정기후원 불자

강경자	강광수	강금분	강덕금	강덕임	강동연	강명수	강명신	강명자
강무정	강미수	강미경	강미자	강민희	강민희	강민희	강성재	강성재
강성호	강수숙	강수진	강숙명	강숙희	강숙희	강정숙	강정숙	강정숙
강수자	강운덕	강인숙	강인애	강인희	강인희	강희현	강희현	강희현
강정하	강자원	강향선	강혜령	강희영	강희영	고미희	고정희	고정희
고광태	고두리	고명숙	고명자	고명자	고명자	고미희	고정희	고정희
고영렬	고우식	공체환	공혜조	구혜조	구혜조	구미숙	구미숙	구미숙
고인영	고익민	곽자영	곽자영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인연	구인숙	구계현	구계현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현희
구인승	구성출			권대현	권대현	권대현	권대현	권대현



수좌복지 일시 특별호원 불자

각저오 / 김미정 / 김오조

수자본지 계자이체 정기호워 불자

일시후원 불자 및 단체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지정 계좌후원 스님, 불자

보안스님 / 덕영스님 / 대혜스님
강명화 김명애 김미경 김미숙 김복주 김선경 김창복 문점순 문필순
신귀향 이정자 이정필 이향림 이향화 이희숙 황영옥 김원기(윤근자)
신구남(임동간)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지정 cms후원 불자

다담(茶談)

한주 정 송 스님

해발 육백 미터 고지대 산중 禪房(선방)

흡사 구름 밭 위에서 차를 마시는 격이다.
고준한 격물치지, 격외도리의 法談(법담)을
나누며 그것을 마시고 있는 격이다.

연거푸 일곱 번째, 이덟, 아홉, 열 번째
차 마시는 동안은 칠월 칠색인데……

어느덧 아랫녁 세상은 낙화가 지고 사방발인 노란 야생 국들이 구르는 낙과에
노을 길을 밟히고 겨울 안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 사이 견우와 직녀의 눈물방울 멀비한다.
복두칠성 끝에 무지개 다리를 세우고 길이 어딜 가지 말라고 되돌아선
명료한 옛 선인들 법려의 말씀으로
봄여름 가을은 먼뜻 지나가고 있다.

우주의 첫잔에 이 땅의 갑사람을 일ぐ
모곡의 진실을 담아 천천한 미소가 넘치는
찻물을 천천히 마시고 있는
너들 바위 잘도 택한 것이다.
솔향기 좌복으로 깔린
해발 육백 미터 고지대 산중 선방.



塵勞迥脫事非常
繁把繩頭做一場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 황벽선사—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다.
밧줄(화두)을 단단히 잡고
한바탕 일을 치루어라.
한 차례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으리요.